

학교 문법에서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인가?

이관규

- I. 들어가기
- II. 한국어는 우핵 언어이고 핵 이동을 한다
- III.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이 아니고 부사구이다
- IV. 나아가기

I. 들어가기

이론 문법에서도 그렇고 학교 문법에서도 그렇고 언어 단위 가운데 절과 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1)의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것인데, 절과 구 모두 문장 속에 있으면서 독립하여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절은 주술 관계가 있으나 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1) 절과 구의 개념

절(節):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

구(句):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

학교 문법에서 절(節)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특성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구(句)에 대해서는 단지 구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제시하고 있다. 흔히 절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대등한 문장에서 등장하는 대등절도 분명히 절은 절이다. 독립

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주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¹

여러 절(節) 가운데 부사절에 대한 논의는 특히 학교 문법에서 많이 있어 왔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인 소위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견해가 2002년에 나온 제7차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 등장한 이후 2012년 현재까지도 학교 문법에서 허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2) ㄱ.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ㄴ.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ㄷ. 길이 비가 와서 질다.

(2ㄱ~ㄷ)의 밑줄 친 것들에 대해서 종속절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을 학교 문법에서 두고 있다. 종속절로 볼 경우는 ‘-게’, ‘-도록’, ‘-아서’를 종속적 연결 어미라 보고, 부사절로 볼 경우에는 이것들을 부사형 전성 어미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갖고서 종속절이니 부사절이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실 부사어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국어의 특징이다. 밑줄 친 것들이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부사어이고, 주술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부사절로 보는 것이 더 설명적 타당성이 있다.²

1 대등절도 선행절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후행절도 절이다. 예컨대 “진달래는 빨강고, 개나리는 노랑다.”라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 ‘진달래는 빨강고’는 물론 대등절이고, 후행절인 ‘개나리는 노랑-’도 대등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개나리는 노랑다’라는 표현은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대등절이 선행절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2 아래의 밑줄 친 것들도 부사절이라고 학교 문법에서 보고 있다. 접미사 ‘-이’를 동반할 경우, 밑줄 친 것들을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부사형 어미라고 보면 모를까 부사와 접미사라고 전제하고서 그리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데서 하도록 하겠다.

ㄱ. 그들은 우리가 입을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ㄴ.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3) ㄱ.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ㄴ.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문제가 되는 것은 (3)에서처럼 ‘-기 때문에’, ‘-는 가운데’가 붙는 구문을 부사절로 보는 학교 문법의 견해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비가 오기’ 자체가 명사절을 이루고 있고, ‘비가 오는’ 자체가 관형사절을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때문에’와 ‘가운데’가 그 뒤에 온다고 해서 (3)의 밑줄 친 부분이 부사절이 된다는 말인가?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명사절이면서 부사절이고 관형사절이면서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언어 유형 이론과 핵 이동 이론을 이용하여 (3ㄱ, ㄴ)의 밑줄 친 구문이 부사절이 아니라 단순히 각각 부사구, 부사어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문법에서 이들에 대하여 절이 아닌 구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한다.

II. 한국어는 우핵 언어이고 핵 이동을 한다

1. 언어 유형과 수식 관계, 그리고 전치사와 후치사

언어를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가지고 언어를 나누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언어는 크게 SOV, SVO, VSO라는 세 가지 어순 유형으로 구분되곤 한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어순 관련 기초 원리는 다음 (4)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4) Greenberg(1963, 1966:77~80)의 어순 원리 몇 가지

- ㄱ. 원리1: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평서문에서 항상 주어가 목적어에 앞선다.
- ㄴ. 원리2: 전치사가 있는 언어에서는 관형어가 항상 체언 뒤에 오고, 후치사가 있는 언어에서는 관형어가 항상 체언 앞에 온다.
- ㄷ. 원리3: VSO 어순을 갖는 언어는 항상 전치사가 있다.
- ㄹ. 원리4: SOV 어순을 갖는 언어는 거의 언제나 후치사가 있다.

(4)는 Greenberg(1963)의 어순 원리 일곱 가지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언어라면 평서문일 경우 항상 주어가 목적어보다는 먼저 온다. SOV, SVO, VSO 언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먼저 주목하는 것은 수식을 하는 것과 수식을 받는 것의 위치이다. SOV 언어인 한국어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 관형어가 체언 앞에 오고 또 부사어가 용언 앞에 온다. 체언이 체언을 수식하는 구조일 때도 앞의 체언이 뒤의 체언을 수식해 준다. 이때의 선행 체언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수식어-피수식어’ 구조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것은 관형어가 체언 앞에 온다는 (4ㄴ)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런데 (4ㄴ)에서처럼 전치사가 있는 언어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온다. 이러한 특성은 (4ㄷ)에서처럼 VSO 언어가 전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곧 VSO 언어는 한국어와 반대로 ‘피수식어-수식어’의 수식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수식 관계에 이어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전치사 및 후치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4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와 후치사는 수식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각각 체언과 용언(어간) 뒤에 붙는다는 점에서 후치사 언어라고 할 만한다. 이것은 (4ㄹ)의 원리와 부합하는 특성이다. 결국 한국어는 SOV 언어로서 후치사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하여

VSO 언어는 전치사 언어이며, 수식 구조도 한국어와는 반대로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온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사 구조 차원에서 볼 때 핵이 되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SOV 언어와 VSO 언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식 관계에서 보면, 분명히 핵이 되는 표현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이다. 곧 SOV 언어인 한국어는 중요한 핵이 되는 표현이 뒤에 오는 후핵(head-final) 언어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VSO 언어는 핵이 되는 피수식어가 수식어 앞에 오기 때문에 선행핵(head-initial) 언어에 속한다.

통사 구조 차원에서 볼 때, 한국어가 후핵 언어에 속한다는 것은 조사와 어미와 같은 소위 후치사가 뒤에 온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조사와 어미가 비록 실사는 아니지만 통사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에 따라서 앞에 오는 표현의 통사적 기능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주격 조사가 오면 해당 성분이 주어가 되고 목적격 조사가 오면 해당 성분이 목적어가 되며, 용언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해당 성분이 관형어가 된다는 말이다. 요컨대 수식 관계와 후치사 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SOV 언어인 한국어는 중요한 핵(Head)이 뒤에 오는 후핵 언어이다.

2. SOV 언어와 핵

SOV 언어와 유형적으로 대비되곤 하는 SVO 언어도 핵의 위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SVO 언어의 어순은 VSO 언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VO 언어에 속하는 태국어 같은 경우는 어순 문제에서 VSO 언어와 완전히 일치한다(Greenberg 1966: 77~78). 그렇다고 해서 모든 SVO 언어가 VSO 언어와 동일한 핵 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SVO 언어인 영어의 핵은 대체적으로 VSO 언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5) ㄱ. Students go to school.

ㄴ. I like the house that is located over the hill.

ㄷ. Book of Tom / Tom's book

(5ㄱ)의 'to school'은 전치사구로서, 여기서 전치사 'to'는 핵(혹은 머리어)이며 후행하는 'school'은 의존어(혹은 수식어)이다. 또한 (5ㄴ)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범박하게 볼 때, 앞에 오는 'the house'가 핵이며 뒤에 오는 'that is located over the hill'이 의존어(혹은 수식어)가 된다. (5ㄷ)에서도 앞에 제시된 'Book of Tom'의 핵은 'Book'이고 의존어는 'of Tom'이다. 물론 'of Tom'에서는 'of'가 핵이고 의존어는 'Tom'이다. 이것은 선행 언어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전치사 'to', 'of'가 핵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후행하는 'school', 'Tom'이 의존어가 된다. 물론 핵인 'Book'에 대해서는 'of Tom'이 의존어가 된다. 이것들은 모두 선행 언어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5ㄷ)의 뒤에 나오는 'Tom's book'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는 뒤에 오는 'Book'이 핵이고 'Tom's'가 의존어이다. 또 'Tom's'에서는 역시 뒤에 오는 's'가 핵이고 앞에 오는 'Tom'이 의존어가 된다.³ 이러한 특성은 SOV 언어인 한국어와 같은 후행 언어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SVO 언어인 영어가 한편으로는 선행 언어의 특징, 또 한편으로는 후행 언어의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⁴

3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기를, “영어의 경우 명사구의 예를 든 ‘the Tom’s book’에서 핵이 되는 부분은 ‘s’이다. 이 경우 Tom은 지정어가 되고, book은 보어가 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거하여 ‘the book’에서도 ‘the’가 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통사적으로 볼 때 the는 Tom을 수식하고, 또 the Tom 전체가 s와 관계하며, 결국 the Tom’s 표현 모두가 book을 수식한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통사구조 차원에서 분석한다고 할 때 [[the [Tom]]’s] book]처럼 구조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영문법 이론에 맞추어서 지정어니 보어니 하여 설명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도입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4 이런 점은 분명 Timothy Shopen ed. (2007: 73)에서 말하는, SVO 언어는 선행(head-

물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VSO 언어든 SOV 언어든 전체적으로 보아 OV 언어는 핵이 뒤에 오고 SVO 언어와 같은 VO 언어는 핵이 앞에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OV 언어에서는 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고, VO 언어에서는 수식어가 명사 뒤에 오는 경향이 있으리라 예상하게 된다(Timothy Shopen ed., 2007: 70~71 참조).

(6) ㄱ. 그 집 / 그 언덕

ㄴ. the house / the hill

ㄷ. 저 아름다운 꽃 / 아름다운 저 꽃 / the beautiful flower

그런데 실제로는 OV 언어나 VO 언어 모두 수식어(의존어)가 명사 앞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6ㄴ)의 ‘the house’와 ‘the hill’에서 보면 ‘the’라는 관사(article, 혹은 관형사)가 핵 앞에 나오며, (6ㄷ)에서도 ‘the’, ‘beautiful’이 핵인 ‘flower’ 앞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6ㄱ, ㄷ)에 있는 한국어와 똑같은 것이다. 이처럼 수식하는 표현들은 선행 언어 내에서도 약간씩 수식 방법의 차이가 있다. 물론 한국어와 같은 후핵 언어는 ‘수식어 - 피수식어’ 구조라는 일관된 특성을 보인다.⁵

3. 한국어와 핵 이동

통사 구조 파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핵(head)을 설정하는 것은 문장 이

initial) 언어이고 SOV 언어는 후핵(head-final) 언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5 Timothy Shopen ed.(2007: 70~71)에서는 영어의 형용사, 지시사, 수사 같은 경우, OV 언어나 VO 언어 모두에 수식어가 명사 앞에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형용사(adjective)와 지시사의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지만, 수사 표현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즉 OV 언어인 한국어의 경우 ‘한 사람’이 물론 가능하지만 ‘사람 하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해에 도움을 준다. 언어 유형적으로 핵이 앞에 오는 유형과 뒤에 오는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은 핵 이동(head-movement)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 ㄱ. [[[[[아름다운 꽃]이] 껴]었]네].

ㄴ. [[[[철수]가] [[빨리] 달리]어].

(7)을 보면 수식어(의존어)인 관형어 ‘아름다운’과 부사어 ‘빨리’가 각각 체언 ‘꽃’과 용언(어간) ‘달리-’를 수식하고 있다. ‘꽃’과 ‘달리-’가 각각 핵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7ㄱ)의 ‘아름다운 꽃이’를 보면 ‘아름다운 꽃’ 전체가 조사 ‘이’와 관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1단계로 핵이 ‘꽃’이었다가 2단계로 주격 조사 ‘이’로 핵이 이동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아름다운 꽃이’ 전체는 ‘피-’와 관계하고 있어서 다시 핵이 용언 어간 ‘피-’로 넘어가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어미인 ‘-었-’, ‘-네’로 핵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통사적으로 볼 때, 후핵 언어인 한국어에서 핵이 오른쪽으로 연속하여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8) 한국어의 핵 이동 원리

SOV 언어인 한국어는 후핵 언어로서 핵이 오른쪽으로 연속하여 이동한다.⁶

6 이에 반하여 VO 언어인 영어는 선행 언어로서 핵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겠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바, 영어는 다양한 수식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서 무조건 핵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III.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이 아니고 부사구이다

한국어를 우핵 언어로 보고 오른쪽으로 핵 이동을 하는 언어로 보게 될 경우에 통사적 설명에서 유용한 것이 많다. 1985년 국정 문법 교과서 이래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는 것’ 명사절 인정 여부 문제가 그렇고, 본고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기 때문에’ 구문의 부사절 인정 여부 문제가 또한 그렇다.

1. ‘-는 것’ 구문은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구이다

일반적으로 명사절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절은 ‘-기’와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로 마물러지는 구문이다.

(9) ㄱ.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ㄴ.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ㄷ.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고등학교 문법』(2002: 164)

(9)에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명사절이다. (9ㄱ)의 ‘그 일을 하-’에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되었고, 또 여기에 주격 조사 ‘가’가 붙어서 ‘그 일을 하기가’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 (9ㄴ)의 ‘그가 정당했-’에 ‘-음’이 붙어서 명사절이 되었고, 이어서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그가 정당했음을’ 전체가 목적어가 되었다. (9ㄷ)에서도 ‘집에 가-’에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되었고, 이어서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결국은 ‘집에 가기에’ 전체가 부사어가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9)의 문장들이 모두 명사절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안겨 있는 명사절은 밑줄 친 것들만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붙은 전체는 문법 범주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당연히 ‘X+격조사’의 구조로서 격조사의 성격에 따라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될 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격조사’ 구문은 구(句)라고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주어구, 목적어구, 부사어구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X는 뒤에 격조사가 동반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명사류일 뿐이다. 물론 명사절로 이루어진 명사류이다.⁷

명사절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는 것’이 붙은 것들이다.

(10) ㄱ. 김 사장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다.

=> 김 사장이 일을 {처리함}/?처리하기가 대단히 합리적이다.

ㄴ. 우리가 오늘도 회사에 지각할 것이 걱정이다.

=> 우리가 오늘도 회사에 {??지각함}/*지각하기가 걱정이다.

ㄷ.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다.

=>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음}/*진화되었기는 그저 추측일 뿐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1985년 국정 『문법』 교과서 출현 이후 2012년 현행 검인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10)의 밑줄 친 부분, 곧 ‘-는 것’

7 흔히 ‘X+격조사’ 구조를 명사구(NP)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영어의 NP 구조와 혼동하는 잘못된 인식의 발로일 뿐이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수행하는 조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격조사의 성격에 따라 전체를 문장 성분 명칭을 사용하여 구(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설명적 타당성을 지닌다.

구문을 명사절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10ㄱ, ㄴ, ㄷ)의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은 ‘것’ 앞부분이 각각 나름대로 주술 관계를 완전히 이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사 구조 차원에서 볼 때 (10ㄱ)은 ‘김 사장이 일을 처리하-’에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절이 되고 이어서 후행하는 의존 명사 ‘것’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결국 ‘김 사장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X’일 뿐이고, 이 X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구조로 (10ㄱ)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는 것’ 구문은 단순한 X일 뿐이며, 결코 명사절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는 것’ 구문은 명사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혹자는 ‘-는 것’은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때 ‘-는 것’도 명사형 어미(혹은 명사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⁸ 그러나 ‘-는 것’을 ‘-음’이나 ‘-기’로 바꾼 표현들의 문법성 혹은 의미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10)의 ‘=>’ 부분에서 보자시피 ‘-는 것’을 명사형 어미로 대치해서 이해하는 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다름 아니다.

요컨대 (10)에서 제시된 전체 문장을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설명력이 결여된 것이다. ‘-는’, ‘-을’ 관형사형 어미를 동반한 관형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는 것이 설명적 타당성이 더욱 있다. (10ㄷ)의 경우는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에다가 ‘-었-’이 붙고, 다시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에다가 ‘-다는’이라고 하는 통합형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⁹

8 (10ㄱ, ㄴ, ㄷ)의 예는 남기심(2001: 217)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거기서는 밑줄 친 부분을 모두 명사절로 보고 있다. ‘=>’ 부분은 필자가 고쳐 본 것이다.

9 Lee Kwankyu(2010)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단독형 관형사형 어미 ‘-는’ 류와 통합형 관형사형 어미 ‘-다는’ 류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이는 본래 ‘-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였으나 ‘-다는’에서는 그 기능을 잃고 ‘-는’과 통합하여 ‘-다는’ 전체가 관형사형 어미 기능

2.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이다

이제는 필자가 주목하는 학교 문법에서의 ‘-기 때문에’ 구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자.

(11) ㄱ.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ㄴ.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앞에서도 살펴본바, (11)의 밑줄 친 부분은 2002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학교 문법에서 부사절로 설정되고 있다. 즉 (11) 문장 전체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사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부사형 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기 때문에’ 전체를 부사형 어미로 보기는 쉽지 않다.

(11 ㄱ)의 밑줄 친 부분은 먼저 ‘비가 오-’ 전체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되었으며, 이어서 이것이 ‘때문’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연이어 ‘비가 오기 때문’ 전체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구가 된 형국이다. 결국 ‘비가 오기 때문에’는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라는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통사 구조상 중요한 핵이 오른쪽으로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는 부사격 조사 ‘에’가 그 앞의 전체 구문의 성격을 결정 짓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1 ㄴ)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비가 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관형사절을 이루는 것은 (11 ㄱ)에서와 동일하다. ‘비가 오는’ 전체가 ‘가운데’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비가 오는 가운데’ 전체가 문장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게 하는 부사격 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비

을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통사 구조상 일정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 ㄱ)의 ‘비가 오기’도 명사절이긴 하지만 뒤에 오는 의존 명사 ‘때문’을 수식하기 때문에 일종의 관형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¹⁰ 즉 (11 ㄴ)의 ‘비가 오는 가운데’가 명사구이지만 결국은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ㄱ.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ㄴ.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손님들이 뛰쳐나갔다.

옷을 입지 않은 채 손님들이 뛰쳐나갔다.

ㄷ. 비가 올 듯, 바람이 사납다.

ㄹ. 비가 올 듯이, 바람이 사납다. [듯이: ‘듯’의 준말]

(12 ㄱ)에서 보면 밑줄 친 부분이 부사어인데, 부사격 조사 ‘에’가 빠진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도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¹¹ 즉 ‘그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이 후행하는 ‘중’을 수식하고, 이어서 전체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더 넓게 부사어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지만 부사격 조사 ‘에’가 빠져 있는 표현도 부사어로서 기능을 하여 부사어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2 ㄴ)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비가 오기’ 명사절이 ‘때문’ 의존 명사에 이어지는 것이 왜 수식 구조를 이루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국어에서 명사와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수식하는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고려 대학교’라고 할 때 앞의 ‘고려’는 뒤의 ‘대학교’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통사적으로는 수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혹 앞뒤 명사가 의미적으로 대등한 경우라면 둘이 병렬로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예컨대 ‘고려 연세’라는 표현은 ‘고려’와 ‘연세’가 수식이 아닌 대등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대개 맥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11 ‘-는 중에’ 구문도 ‘-기 때문에’ 구문과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에서 부사절을 이룬다고 설명하는 것은 김인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나온다(이삼형 외 2012: 287).

‘옷을 입지 않은’이 의존 명사 ‘채’를 수식하고 여기다가 부사격 조사 ‘로’가 붙어서 부사구가 되고 부사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 역시 ‘로’가 없는 표현도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어구가 된다.

(11ㄱ), (12ㄱ, 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 때문에’, ‘-는 중에’, ‘-은 채로’가 부사구로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나, ‘-는 중’, ‘-은 채’처럼 부사격 조사가 없으면서도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 ‘-는 중’, ‘-은 채’ 구문은 부사구인가 아니면 명사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흔히들 ‘채’ 같은 경우를 부사성 의존 명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는 중’, ‘-은 채’ 구문은 당연히 명사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는 부사어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¹² 이는 명사와 명사가 이어져 있으면서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앞의 명사를 관형사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요컨대, 부사격 조사가 구현되어 있지 않은 ‘-는 중, -은 채’ 같은 표현은 독립적으로 보면 명사구이며, 일정한 문장 안에서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어구가 될 것이다.

(12ㄷ, ㄹ)에서는 ‘-르 듯’, ‘-르 듯이’ 구문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듯’, ‘듯이’는 부사성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12ㄷ, ㄹ)의 ‘-르 듯’, ‘-르 듯이’ 구문은 독립적으로는 명사구이며 통사적으로는 부사어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이며, ‘-는 가운데’ 구문은 부사절이 아니라 독립적으로는 명사구이며 통사적으로는 부사어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설명의 근거에는 언어 유형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어가 후핵 언어라는 사실과 핵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12 ‘중에’가 오는 구문이 반드시 관형사절을 선행절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고사 기간 중에는 도서관을 12시까지 개방합니다.”라는 문장을 보면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명사구가 ‘중’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나아가기

필자는 ‘-기 때문에’ 구문이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라고 주장하였다. 학교 문법에서 ‘-기 때문에’ 구문을 부사절로 보는 이유는 이 연결 표현을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결과론적 교수 학습 효용성을 염두에 둔 데 있었다. 그러나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 혹은 문법 교육의 탐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와 논리를 갖춘 설명이 우선 되어야 한다.

특히 언어 유형론적 차원에서 SOV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는 후핵 언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핵이 되는 요소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한다는 핵 이동 원리에 따라서 한국어의 통사 구조 차원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통사적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문장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는 부사절이 아니라 부사구이다. ‘비가 오-’에다가 후핵 요소인 ‘-기’가 붙고, ‘비가 오기’는 다시 후핵인 ‘때문’을 수식하고, 이어서 ‘비가 오기 때문’ 전체가 또 다시 후핵 요소인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구가 완성된다.

이처럼 핵이 되는 요소는 실질적 어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가 될 수도 있다. VSO 언어와 SVO 언어는 전치사 언어이기 때문에 선행 언어에 속하며, SOV 언어인 한국어는 후치사 언어이기 때문에 후핵 언어에 속한다. 비록 문법 요소라 하더라도 통사 구조 차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핵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비가 오-’ 자체에서의 핵 이동 원리 문제이다. 물론 ‘비’가 주격 조사 ‘가’로 핵 이동하고, 이어서 ‘비가’는 서술어 ‘오-’로 핵 이동한다고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도 역시 계속 오른쪽으로 핵 이동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철수’가 ‘가’로, ‘철수가’가 ‘밥’으로, ‘철수가 밥’이 ‘을’

로, ‘철수가 밥을’이 ‘먹-’으로 등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어에 대한 직관상 이렇게 핵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철수가’가 ‘먹-’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밥을’도 ‘먹-’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철수가’와 ‘밥을’은 동시에 ‘먹-’과 핵 이동 관계를 맺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은 한국어 문장을 오른쪽 핵 이동이라는 하나의 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후고를 요한다.

* 본 논문은 2012.10.28.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3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이관규(2002), 「제7차 문법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문법 내용적 특징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4, pp. 321~354.
- _____(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남호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이삼형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 조성식 엮음(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Croft, William(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oseph H. ed.(1963, 1966), *Universals of Language*,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Herausgegeben von ed.(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Walter de
Gruyter · Berlin · New York.
- Lee, Kwankyu(2010), "Is 'uy' the Only GCP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III*, Harvard-Yenching Institute, pp. 467~475.
- Shopen, Timothy ed.(2007),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교 문법에서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인가?

이관규

학교 문법에 따르면 아래 문장들에서 밑줄 친 것은 부사절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아니라면 무엇일까?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언어 표현 가운데 중심이 되는 핵(核, 머리어)으로 N, V, A, P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형어가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어가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며, 또한 비록 전치사 혹은 후치사(조사와 어미)이지만 이것들도 핵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그 집’, ‘천천히 달려.’, ‘매우 예뻐.’, ‘집에’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SOV 언어인 한국어는 이처럼 통사적으로 중심 되는 것(핵)이 뒤에 오는 후핵 언어에 속한다.

한편 태국어는 중심 되는 핵이 앞에 오는 선행 언어에 속한다. 태국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SVO 언어에 속한다. 그리하여 중심어는 앞에 오고 수식어는 뒤에 온다. 그런데 같은 SVO 언어이지만 영어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영어는 중심 되는 핵이 뒤에 오기도 하고(예: the book / Uncle's house), 앞에 오기도 한다(예: House of uncle / to the school). 흔히들 SOV 언어는 후핵 언어이고 SVO 언어는 선행 언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유형론적 차원에서 볼 때, ‘비가 오기 때문에’는 부사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비가 오-’에 ‘-기’가 붙어서 명사절 ‘비가 오기’가만 들어졌고, 이어서 이것 전체가 ‘때문’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며, 연이어서 명사구(NP) ‘비가 오기 때문’ 전체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구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설명 방식이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부사절이 아니라 통사 구조상 부사어구라고 보는 게 설명적 타당성이 있다. ‘비가 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 ‘비가 오는’이 ‘가운데’라는 명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명사구가 되며, 이어서 비록 ‘비가 오는 가운데’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지는 않았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 전체가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의 배경이 되고 있어서, 통사 구조적으로는 부사어구가 된다.

핵심어 부사절, 부사구, 핵 이동, SOV 언어

Are the Constructions of ‘-ki ttaemune’ Adverbial Clauses in School Grammar?

Lee, Kwan-kyu

According to school grammar, the underlined parts in below sentences are regarded as adverbial clauses. But this thought has many problems.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pika oki ttaemune, kili jilda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pika oneun kaunte, haengsaneun yeojeongdaero yeolryeossta

It is known that N, V, A, and P are nucleus in sentence. In Korean, a determiner modifies noun, and adverb modifies verb. Also, postposition plays a role as nucleus. We can find examples as follows: ‘그 집’, ‘천천히 달려.’, ‘매우 예뻐.’, ‘집에’. Therefore, Korean, SOV language, belongs to head-final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ai belongs to head-initial language, meaning head comes ahead, dependents come back. As a result, Thai belongs to SVO. But even though Thai and English are the same SVO languages, English is different from Thai. In English, head comes back(ex: the book / Uncle’s house), or front(ex: House of uncle / to the school).

In an opinion of language typology, it is not difficult for ‘비가 오기 때문에’ to be adverbial phrase. ‘비가 오-’ becomes nominal clause ‘비가 오기’ after ‘-기’ adds to it, and ‘비가 오기’ modifies N‘때문’, successively NP ‘비가 오기 때문’ in help of adverbial case particle ‘에’ becomes to adverbial phrase. This is explaining way that head moves to right.

Also ‘비가 오는 가운데’ is not adverbial clause, but just NP phrase, and adverbial phrase, I suppose. ‘비가 오-’ becomes ‘비가 오는’ ‘in help of determiner ending ‘-는’, and then ‘비가 오는’ modifies N ‘가운데’. Therefore ‘비가 오는 가운데’ is NP phrase. And even if it has not additional adverbial case particle ‘에’, it becomes background of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so it is adverbial phrase syntactically.

KEYWORDS adverbial clause, adverbial phrase, nucleus movement, SOV language